

그렇지만 라 투르 부인은 딸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정과 더불어 걱정도 함께 늘어 가는 것을 느꼈다네. 부인은 이따금 내게 “만약 내가 죽기라도 하면, 가진 것 하나 없는 비르지니는 어떻게 되겠어요?”라고 말하곤 했지.

부인에게는 프랑스에 사는 이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나 돈은 많고 나이 들어 독실한 분이셨으나, 부인은 라 투르 씨와 결혼하던 당시 도움을 청했다가 너무 매정하게 거절당했던 적이 있어서, 아무리 곤궁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더라도 이모님에게만큼은 결코 의지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네. 하지만 엄마가 되고 보니, 거절당하는 창피라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 라 투르 부인은 이모에게 예기치 못한 남편의 죽음이니, 딸의 출생이니, 고향을 멀리 떠나 아무 지원도 없이 아이를 도맡아 키워야 하는 당혹감이니 하는 것들을 털어놓았어. 부인은 아무 답장도 받지 못했네. 고결한 성품을 지닌 부인은 그렇게 무안을 당하더라도, 또 아무리 덕망이 높은들 출신이 천한 남자와 결혼한 것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친척의 비난에 직면한다 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 그래서 부인은 이모님의 감수성을 자극해 비르지니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게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편지를 썼다지. 허나 이모님으로부터 어떤 안부 표시도 받아보지 못한 채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네.